

세 아 가 조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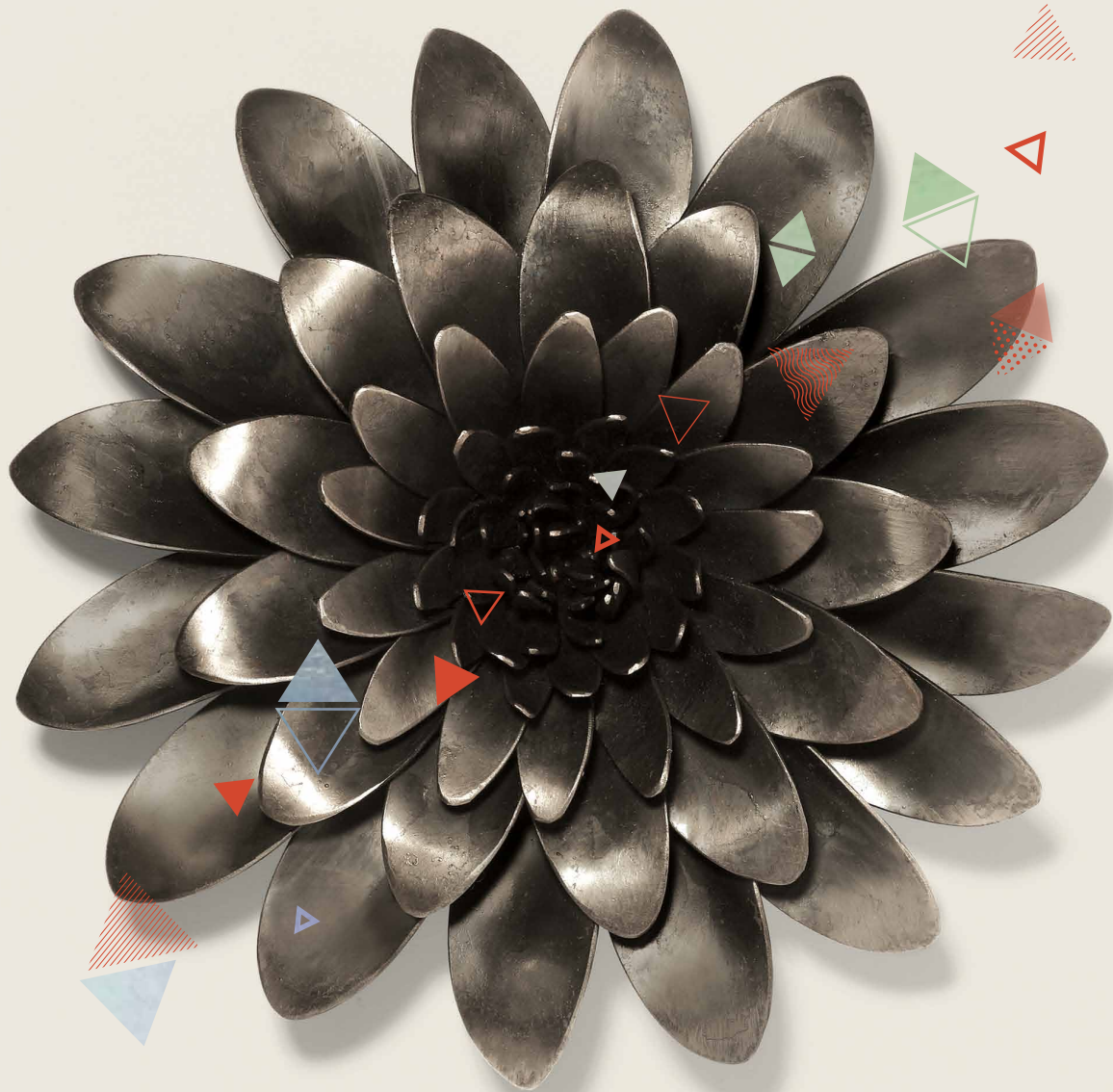
Special Theme

故 이운형 회장을 KEYWORD 하다
이운형 회장 영면 1주기 추모행사
사랑합니다 영원한 회장님

Special Issue

신임사원의 눈으로 본 <가스텍 2014>
세아 ESAB, 대한민국 최초
Seamless FCW 개발

March + April 2014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는

떠났지만

향기는
남아있네

후두둑 눈물처럼 연분홍 꽃잎들이 훑날리는 봄날입니다.

떠나간 그분을 떠올립니다. ▶

가지마다 푸르게 희망으로 초록을 틔우고

내딛는 발자국마다 감사와 겸허의 꽃씨를 품어

이윽고 눈부시게 꽃잎 피우던 사람

여전히 우리 곁에 향기로 머무는 사람

이운형 회장님, 당신이 남기신 꽃말을

가만히 가슴에 다시 새겨보는 봄날입니다.

花香千里行
人德萬年薰

“철과 같은 마음이란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항상 변하지 않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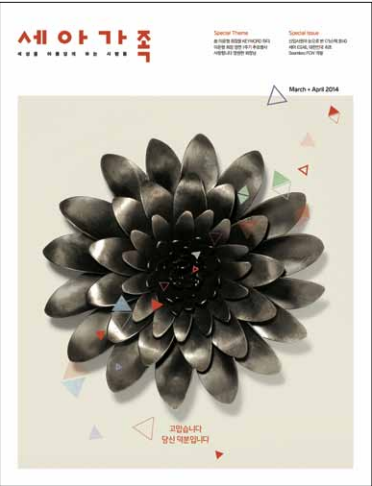
‘세아’라는 의미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만들면서 우리의 자긍심을 키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현재 흘러나오는 음성은故 이운형 회장님의 실제 육성을 편집한 것입니다.



CONTENTS

March + April 2014 Vol.350



Cover Story



이웃고 다시 봄입니다. 지천에 갖가지 꽃들이 제 빛깔과 향기로 곱게 피어나고, 만물이 화생하는 봄입니다. 故 이운형 회장이 우리 곁을 떠난 계절, 우리는 봄처럼 따스한 미소를 지녔던 그를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이번 사보는 많은 세아가족의 마음 깊이 하나의 잊혀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은 분, 故 이운형 회장을 향한 헌화입니다. 철과 같은 마음으로 꽃과 같은 향기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감사와 겸허의 깊은 울림을 남겨준 사람. 이운형 회장님, 당신께 꽃을 바칩니다.



故 이운형 회장 영면 1주기

- 02 Special Essay
화향천리행 인덕만년훈(花香千里行 人德萬年薰)
- Special Column
- 06 故 이운형 회장을 KEYWORD 하다
- 10 감동과 울림의 여정, 66년의 족적을 따라 걷다
- 14 故 이운형 회장이 남긴 위대한 가치 - 정직·열정·실력
- 16 전하고픈 한 마디 말 - 사랑합니다 영원한 회장님
- 18 이운형 회장 영면 1주기 추모 행사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던 당신이 그리웁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SeAH

- 세아는 지금
- 24 신입사원의 눈으로 본 <가스텍 2014>
- 28 세아 ESAB, 대한민국 최초 Seamless FCW 개발
- 30 백 투 더 세아
철강제조 기업에서 기업시민으로
세아의 사회공헌 활동기록
- 32 글로벌 세아
여기는 이탈리아 이녹스텍 현장입니다
- 36 현장견문록
0.001의 차이를 관리하는 사람들
<세아메탈 원주공장 품질경영팀>
- 40 부서탐방기
치밀하게 준비하고 거침없이 도전한다
<세아엔지니어링 대전공장 터보사업부 영업팀>



마음이 통하는 SeAH

- 44 취미 삼매경
유쾌한 대장장이들의 합주
세아베스틸 사내 동호회 밴드 <더 스미스>
- 48 특별한 하루
향기로 전해지는 감사와 행복 <플라워 아트 체험>
- 52 리얼 리뷰
맛집 <Spring Come, Rain Fall>
영화 <해피엔딩 프로젝트>
- 54 SeAH News | People News
- 56 Reader's Page



故 이운형 회장을

KEYWORD 하다

열정적인 세아인이었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제인이었으며, 인류애를 실천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 강관업계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숨은 주역이자, 주요 계열사를 시장 선도 기업으로 육성시킨 탁월한 리더였던 사람.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故 이운형 회장의 인생을 어찌 몇 개의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랴. 가능할 리 없다. 하지만 이운형 회장과 땀레야 땀 수 없는, 그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분명 존재한다. 우리 세아인들의 기억 속에, 세아의 아름다운 지난 여정 속에 새겨진故 이운형 회장의 모습을 몇 개의 키워드로 들여다 본다.

이운형 회장이 떠나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단어들은 그를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마치 이운형 회장에 대한 기억과 하나의 실로 연결된 듯 문득 떠오르는, 다시금 선명해지는 그를 이어주는 몇 개의 단어들.

여러 임직원들이 이운형 회장을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땐 문을 잡아주고, 신입사원을 귀한 손님처럼 맞이하며 그들이 그간 겪었을 취업의 고충을 위로해 주던 그를 떠올린다. 마주치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다시 만나면 먼저 안부를 묻고,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현장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 했던 그의 모습은 임직원들에게 회사에 충정을 다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실제로 한 세아인은 “어떻게 세아는 50년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지인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이운형 회장님이 검소하고 회사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생활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40년 간 철강 외길을 걸어오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독인 이운형 회장의 마음 씀씀이는 ‘바람과 해님’이라는 동화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는 교훈이며 그를 기억하는 세아인 모두의 가슴에 새겨진 귀감이다.



부드러운

Leadership



微笑

미소

‘말 없이 웃는다.’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운형 회장의 얼굴은 아마도 말 없이 온화하게 웃음짓는 표정일 것이다. 큰 조직을 이끌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마치 자상한 아버지처럼 부드러운 면모를 지녔던 이운형 회장. 실제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운형 회장이 평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IMF와 금융위기로 모두가 어려워할 때도, 심지어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을 때조차 임원들에게 “힘드시죠?”라는 말로 위로를 먼저 건네던 이운형 회장.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도 “왜 그랬어~”라고 다독이던 그의 미소는 절로 뉘우치고 더 크게 깨닫게 하는 부드러운 힘이였다.



Humanist

부산파이프가 재계 50위 세아그룹으로 승승장구한 도정에는 이운형 회장의 신중한 선택과 리더십이 있었다. 빈틈을 보이지 않는 섬세함과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함을 갖춘 동시에 한 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지닌 그의 리더십은 그룹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빛을 발하였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했던 이운형 회장의 안목은 세아 최초의 합작사인 부산번디(現 한국번디)가 품질 안정을 이룬 후 소형 튜브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이 같은 그의 행보는 부산번디에 이어 1985년 외국 합작사로 설립된 한국알로이로드(現 세아 ESAB)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FCW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1987년 7대 선급 승인을 받아 세계적인 품질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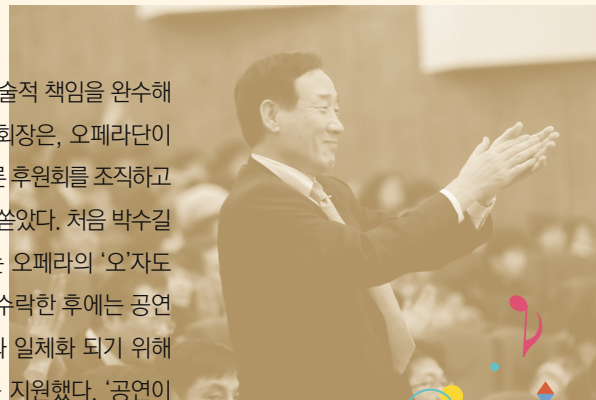
이운형 회장이 세아제강에서 세아홀딩스를 분할하여 지주회사제를 도입한 일도 국내 대기업 가운데 단연 선발주자 격이었다. 지주회사제 도입으로 세아제강은 자체 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키웠고 세아홀딩스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그룹의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전문화시켰다. 그의 선구안적인 능력은 2003년 기아특수강(現 세아베스틸) 인수 당시 다시 한 번 발휘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아특수강을 회생 불가능한 기업으로 여겨 판매 입찰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 이운형 회장은 특수강 사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철강사업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 여겨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 이운형 회장의 이 같은 노력으로 세아는 기아특수강을 품에 안는 데 성공했으며 인수 후 불과 1년 만에 만년 적자 기업을 흑자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이운형 회장처럼 충실했던 경영자도 드물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 아래, 각종 사회공헌 활동, 보호시설 청소년 자립지원, 소외계층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으며, '세상을 아름답게'하는 기업으로서의 세아의 정체성을 갖춰나갔다. 2009년 철강업체들이 한파를 겪었던 이듬해, 이운형 회장은 세아베스틸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었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이운형 회장은 나눔 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직원은 가족'이라는 인식을 깊이 가졌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도 인사정리 없이 고용을 유지했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Insightful 통찰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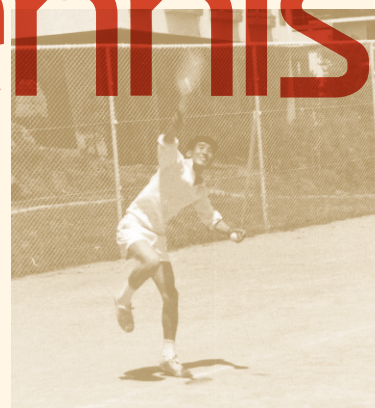
2000년은 국립극장 산하에서 독립한 국립오페라단이 스스로 운영과 예술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초대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이운형 회장은, 오페라단이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과 협조는 물론 후원회를 조직하고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며 13년간 끊임없이 깊은 애정을 쏟았다. 처음 박수길 한양대 음대 명예교수가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줄 것을 권유했을 때는 오페라의 '오'자도 모른다면 몇 번이나 손사래를 치던 이운형 회장. 하지만 이사장직을 수락한 후에는 공연마다 티켓, 팸플릿, CD를 모으고 공연기사를 스크랩하는 등 오페라와 일체화 되기 위해 열성을 다해 공부했으며 스폰서를 맡은 작품마다 아낌없이 제작비를 지원했다. '공연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주변에 전화를 걸어 "공연 좀 보라"며 티켓을 대신 팔아주었고, 공연장은 이운형 회장이 초대한 기업인들과 저명한 인사들로 넘쳐났다. 공연이 끝난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출연자들에게 일일이 "수고했다"고 악수로 격려했으며, 때로는 아버지처럼 단원들의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다. 진정한 오페라의 전도사였던 이운형 회장은 2003년 메세나 대상 시상식에서 '창의상(대기업 부문)'을 수상하고, 2009년에는 독일 몽블랑재단이 주최하는 올해의 문화예술 후원자에 선정되며 오페라 대중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 받았다.



Opera



Tennis



이운형 회장은 미시간대 MBA 재학 시절에 선수로 활약했을 만큼 테니스를 즐겼다. 평소 직원들과도 격의 없이 테니스 시합을 하기도 하였다. 기업의 홍보를 넘어, 테니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운형 회장은 '세아제강컵 세계 여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의 창설 및 후원을 결정하였고, 1996년 5월 5일 제1회 대회가 개최됐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열린 이 대회에 국내외의 수준 높은 선수들이 다수 참여하여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첫 대회부터 성황을 이룬 대회는 이듬해 5월 제2회 대회를 비롯하여 매년 정례화된 국제대회로 열리면서 기량 있는 선수들을 배출하는 전통 있는 대회로 자리잡아갔다. 이운형 회장은 2005년 6월 열린 제10회 대회까지 꾸준하고 묵묵한 후원을 이어가며 한국여자 테니스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스스로를 낮추는 덕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생으로 말하고 가신 **이운형 회장**.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운형 회장의 열정과 업적을 말하는 단어가 어디 비단 이뿐이겠는가. 그 분을 떠올리는 모든 단어들이, 모든 표정들이, 많은 이들에게 아낌 없이 베풀면서도 항상 변치 않는 겸손함을 강조한 이운형 회장의 여운 깊은 메시지일 것이다. 100년 기업을 이끌어갈 세아인에게 남겨진 귀중한 유산이다.**

감동과 올림의 여정, 66년의 족적을 따라 걷다

지난해, 이운형 회장의 별세 소식이 들리자 그를 아는 사람이면 저마다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세상을 떠나고 더욱 좋은 평가를 듣는 경영자인 만큼 이운형 회장의 삶은 더욱 주목된다. 66년의 값진 여정을 사진과 함께 돌아봤다.

이 1947~1973 (~26세)

지성 · 인품 · 실력을 갖춘 청년 이운형

故 이종덕 창업회장의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이운형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회복탄력성 환경 속에서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그는 “힘든 곳에 서 단련 받으라”는 선친의 뜻에 따라 서울이나 큰 도시 후방이 아닌 ROTC로 제5사단에 자원 입대했다. “부자집 아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나”는 친구의 질문에는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또한 이운형 회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 기업사에서 선구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생산이는 판매는 현장에서 하라”고 말하느 현장 중시 마인드를 가까이에서 보고 지켰다. 이러한 성장 배경 속에서 이운형 회장 역시 현장과 정도, 원칙을 지키는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쌓았다.



1947. 2 서울 출생

1965.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9. 2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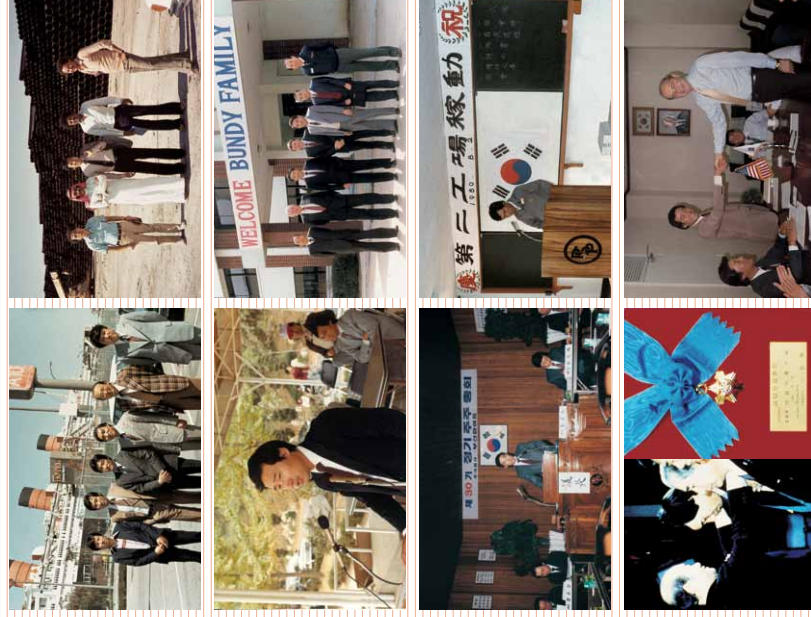
1971. 6 예비역 육군 중위 전역

1974~1986 (27세~39세)

02

내실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이운형 회장은 1974년 부산파이프(現 세아제강)에 이사로 취임하고, 1980년 격동기에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40년 철강 외길 인생'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젊은 패기와 자성, 인품과 경험을 고루 갖춘 이운형 회장은 빠르게 회사의 성장 엔진을 장착해 나갔다. 1981년 강관 업계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사업 전 문화와 다각화를 추진하여 세아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이운형 회장의 뛰어난 경영 역량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운형 회장은 해덕통운(現 세아 L&S)를 설립하여 철강 운송업에 진출했으며, 세아가 기초 소재의 국산화와 품질 안정화에 집중하여 엄중 전문화와 사업 다각화를 전개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세아 최초 외국 합작법인인 부산번디(現 한국번디)를 출범하여 철강제조업의 터를 넓혔다. 또한 1985년에는 한국알로이로드(現 세아 ESAB)를 세워 국내 최초로 FCW를 국산화하는 등 세아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갔다.



1974.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취부산파이프(現 세아제강) 이사 취임)

1979. 3 부산번디(現 한국번디) 설립,
소형 튜브 국산화

1980. 2 대표이사 사장 취임

1981. 12 '제18회 수출의 날'에서 강관업계 최초로
<억불 수출의 탑> 수상 및 <금탑산업훈장> 수훈 영예
“부산파이프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강관 전문 공장으로서 가장 우수한 회사가 되는 것”

1985. 12 한국알로이로드(現 세아 ESAB) 설립,
특수 용접재료 FCW 국산화

1987~2000 (40세~52세)

03

1988. 5 창원강업(現 세아특수강) 인수
1989. 12 한국의 젊은 최고 경영자들의 모임 한국YPO 회장
(Young President Organization)

소리 없이 강한 시대의 경영자

이운형 회장은 '철강'이라는 핵심역량에 집중하
면서 연과 산업을 확장했다. 부산비디(現 한국
비디)는 소형 튜브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실현한
후 해외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으며, 1988년에는
창원강업(現 세아특수강)을 인수합병해 사세를
확장했다. 다양한 사업 분야로 눈을 돌리기보다
'철강'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이운형 회장의 경
영 방식을 보수적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IMF 외환위기 때는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유지
하여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운형 회
장은 '나서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뒤에서 묵
묵히 일하는' 경영방식을 가졌던 것으로도 정평
이 나 있다. 겸손하고 온화한 경영 방식으로 결
과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운형 회장을
향해 사람들은 '철강업계의 신사'라고 불렀다.



공존과 배려의 삶을 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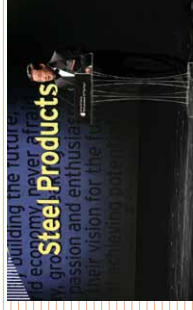
이운형 회장은 적시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밀어
붙이는 승부사의 면모를 보였다. 모든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3년 기아특수강(現 세아베
스틸)을 인수해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우뚝 세
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그는 2010년
청림 50주년을 기점으로 기업의 체질 강화에 주
력했다. 우량 회사로 거듭난 세아베스틸은 제강
생산량 200만 톤을 돌파하며 2012년 세계철강협
회 회원사로 거듭났으며, 세아특수강은 201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로써 세아그룹은
총 4개의 상장회사를 두게 됐다. 또한 그는 중
국, 아랍에미리트 등에 현지 법인을 세워 글로벌
별 강관기업으로서 발돋움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서울 합정동에 마련한 통합사옥(세아타워)
에 입주하여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이운형 회장은 문화예술계 및
지역사회에 조용한 기부와 후원을 이어가면서
경영인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의 표본이 되
었다. 2013년 3월 10일 해외 출장 중 갑작스럽
게 별세했을 때, 이운형 회장의 빈소에는 정, 재
계, 문화, 체육계 인사들을 비롯해 수많은 이들
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운형 회장이 평소
에 얼마나 폭넓게 덕을 쌓고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04

2001~2013 (53세~66세)



2001. 세아홀딩스 지주회사 설립
(취세아홀딩스 회장 취임)
2003. 11 메세나 대상 '창의성(대기업 부문)' 수상
2003. 12 기아특수강(現 세아베스틸) 인수,
1년 만에 흑자기업으로 전환
2003. 2 한국윤리경영대상 (순환경영 부문 대상)
2005. 1 (취세아베스틸 대표이사 회장 취임)
2006. 6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취임
2007. 4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취임
2008. 1 국립오페라단 후원회장 취임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에게서 보고 배웠습니다."
2009. 6 몽블랑 문화예술후원자상 수상
2009. 10 한국재무경영대상 종합대상
2011. 4 UAE 공장 준공식
2012. 5 한국CEO대상 수상
2012. 10 대한금속재료학회 금속재료상
2013. 1 통한사옥 세아타워 입주
2013. 3 향년 66세로 별세
2014. 1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수상



故 이운형 회장이 남긴 위대한 가치 정직·열정·실력

이운형 회장이 영면하시기 전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 있다. 세아의 세 가지 핵심가치 정직, 열정, 실력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DNA 깊게 새겨야 할 이 가치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 속에故 이운형 회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함께 감상해보자.



01 HONEST



반칙과 편법을 불사하는 이들과 달리, 주인공은 정직하고 우직하게 달려나간다. 피를 부리던 이들이 자기 껍데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사이, 더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고집하며 정직하게 달려온 주인공이 그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한다.

‘정직’에 관하여 이운형 회장이 남긴 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의 법 준수 및 사회공헌 인식 또한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정해진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윤리경영에 충실한 세아인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2013년 신년사

“정직이 세아의 근간입니다. 마음속에 ‘바를 정(正)’을 품고 사는 세아인으로 계속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세아는 과거 고속 성장의 시대에 정직을 근간으로 살아왔고, 미래 대변환의 시대에도 정직을 근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 2012년 핵심가치 재정립 관련 회장님 인터뷰

“규모가 큰 다른 파이프 회사들은 IMF를 지나면서 거의 다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세아는 어떻게 살아남아 더욱 성장했느냐? 그건 역시 회사 설립 때부터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해온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2011년 경제매거진 <조선 이코노미플러스> 인터뷰

02 PASSIONATE



초승달만 덩그러니 떠 있는 하늘에 아름다움을 더할 수는 없을까? 주인공은 상상을 이내 실행에 옮긴다. 딱딱한 쇠 덩어리를 열정적으로 담금질하여 만든 V자를 들고 사다리에 오르는 주인공. 아찔한 높이와 비바람에도 그는 열정의 끈을 놓지 않고, 마침내 ‘V’와 별들을 흠뻑려 밤하늘 가득히 수놓는다.

‘열정’에 관하여 이운형 회장이 남긴 말

“우리는 우선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저성장에서 오는 시장의 침체, 심화된 경쟁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2013년 세아그룹 신년회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애쓴 창업세대 여러분들, 또 선배 경영인, 기술 관계자 여러분들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포용정신과 개혁 정신으로 무장한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아가 50년의 역사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2011년 ‘4기 챌린지 리더’ 임명장 수여식

03 PROFESSIONAL

‘실력’에 관하여 이운형 회장이 남긴 말

“실력은 역량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실력을 갖추려면 운영을 위한 시설 투자 외에 효율, 효과를 높이는 전략 투자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재상으로 품격 있는 사람, 효율과 효과적 일처리 능력을 높이고, 소통과 경청의 문화로 조직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 2012년 핵심가치 재정립 인터뷰

“리더들의 실력이라는 것은 먼저 얼마나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지는가입니다.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건전한 사고방식. 이 말이 진부하겠지만, 상식에 어긋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2011년 ‘4기 챌린지 리더’ 임명장 수여식

부족한 실력으로 쓰는 화살은 과녁을 빗나가기 일쑤. 운으로 과녁의 정중앙을 맞출 수 없음을 안 주인공은 실력 연마에 나선다.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어도 그의 노력은 계속되는데... 마침내 V자 활대가 불꽃을 내뿜으며 별절게 달아오르고, 그가 마지막으로 쓴 화살은 정확하게 과녁의 정중앙을 명중시킨다.



항상 회장님께서 “아가야~”하며 온
화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던 모습이 그
립습니다. 베푸신 사랑,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 한국번디 해외사업지원팀 이찬

인사하시고 온화하신 모습 가슴
깊이 담아 생활하겠습니다. 애절
한 그리움 만큼이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허재영

“우리 회장님”이라고 어디서든
뜻뜻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
셔서 감사합니다.

- 세아제강 자금팀 송인한

회장님! 망고 빙수를 맛있게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망고
빙수를 사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꿈 속에서도
오시면 달려가 맞이하겠습니다.

- 세아제강 북경사무소 김한준

스쳐 지나는 한순간으로도 회장님의 기품과 선하
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존경하고 닮아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가끔씩 세아타워 출입문을
열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사무실 의자에 앉을
때에 그리움에 당신을 뵈었던 시간을 그려봅니다.
짧은 인연이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으신 회장님,
보고 싶습니다.

- 세아제강 생산계획팀 권병수

USP 준공식 때 오셔서 힘든 시기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수고 많았다”며 현지 파견 가족들이랑 식사나 하라고 회장님
의 출장비 봉투를 건네주시던 모습, 복귀 후에도 포항공장에
방문하셔서 애들은 잘 적응하냐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회장님의 그 인사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신 그 뜻을 받들어 세아의 큰 터
전을 만드는 데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 세아제강 설비기술파트 임종표

‘회장님’이라는 무거운 단어에 어떻게 이리도 따뜻
함이 배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세아 가족들만이
느끼는 특권일 것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저마다의
추억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는 가슴이 먹먹합
니다. 회장님!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세아제강 인사팀 박승균

회장님은 세아의 자부심과 경쟁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회장님을 늘 가슴 속 깊이 새기며, 회사의 성장
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환한 미소로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던 회장님의 따뜻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그립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 세아홀딩스 감사파트 임재원

저희 세아인들에게 따뜻함과 겸손함을 보여주신
회장님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
적이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회장님의 메시
지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 세아베스틸 QM파트 손태현

5~6년 전, 봉래동 사옥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책을, 또 다른 쪽 손에는
서류가 담긴 소핑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임원분께
서 짐을 들어드린다고 하자 회장님께서 “괜찮
다” 하시며 그저 선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임원
분도 늘 있는 일인 듯 더 이상 개의치 않았습니
다. 본인한테 엄격하시고 자그마한 수고를 피곤하다
생각하지 아니하신 분, 직원과 사회에는 크고 좋
은 것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으셨던 분, 그야말로
본인의 삶을 세아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
하신 분. 추모의 글을 적는 지금, 회장님을 추억하
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다시 감동하게 됩니다.
회장님께서 영원히 세아와 함께 하시겠지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김주봉

2002년으로 기억합니다. 생산팀장으로
공장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연말 회장
님을 포함한 각 사 대표이사님들과 함께
공장순회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 창원
공장을 둘러보시고 “우리 온다고 준비
를 많이 했군. 아직도 페인트가 다 안 말
랐네. 고생했어”라고 웃으며 말씀
하시던 회장님의 미소가 아직도 생각
납니다. 그 환한 미소가 그립습니다.
세아의 미래를 위하여 미려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 세아메탈 영업부문 주형백

지금도 회장님의 온화하고 인자하
신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겨울날
점심시간에 봉래동 칼국수집에서
만난 저희 팀원들에게 많이 먹으
라고 하시며, 계산도 손수 해주시
던 따뜻하고 소탈하신 모습이 자
꾸 떠오릅니다. 그곳에서도 평안
하시길 기원합니다.

- 세아 L&S 국제물류팀 이상경

회장님이 따뜻한 손길로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청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늘에서
도 저희들을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
니다. 편히 쉬십시오.

- 세아제강 윤리실천사무국 이기호

전하고픈 한마디 말

사랑합니다 영원한 회장님

지난 3월, 세아그룹 게시판에서는故 이운형 회장
영면 1주기를 맞아 추모 댓글 행렬이 이어졌다.
찰나의 순간조차 따스하고 깊은 인상으로 남은
분, 이운형 회장과의 추억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지침이 되었으며
그의 존재는 모두의 자랑이고 금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운형 회장이 부재하는 지금,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아타워로 이사할 때, 목장갑을 끼시고 3층
회장님 방의 책을 스스로 정리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아니야, 내 방은 내가 차울게. 바쁠
텐데 자네 자리 정리해”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존재
자체로 세아의 기둥이셨던 회장님, 그립습니다.

- 세아홀딩스 미래전략파트 김운성

아직도 믿겨지지 않지만, 슬픔을 잊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세아인으로서 느꼈던 회장님과의 소중한 인연
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회사에 대한
사랑을 항상 명심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 세아제강 아연도강판영업팀 송석현

악수를 해보거나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은 없었지만, 퇴근길 봉래
동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퇴근하나 봐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라며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먼저 건네
주셨던 회장님의 인자한 모습이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있습니
다. 계신 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 세아홀딩스 재무관리파트 안미경

아직도 곁에 계신 듯님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남께서 떠나신 이후로도
훈훈한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이 너무 많은 이유겠지요. 아직까지도 매달 교육시간엔 회장님 사진
을 띄우며 회고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과
거형으로 말하지 말라는 노랫말처럼, 계신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용
기 내어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네요. 사랑합니다.
우리 회장님을... 영원히...

- 세아제강 생산팀 안상렬



이운형 회장 영면 1주기 추모 행사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던 당신이 그리웁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의 발자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철강업계 최고의 경영인이자 휴머니스트였던 故 이운형 회장의 삶도 그러하다. 이운형 회장이 영면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추모 사진전과 음악회 등을 통해 다시 되새기는 그의 꿈과 메시지는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리며 사람들의 마음 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아름답고 그리운 사람...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故 이운형 회장이 영면한 지 1년째 되던 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합정동 세아타워와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그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 세아타워 오디토리움에서 고인의 신상에 따라 추모 예배가 열렸다. 유가족을 비롯하여 고인과 절친했던 지인들, 고인이 소중히 했던 주요 임원들 등 130여 명이 이날 추모 예배에 참석하여 이운형 회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랬다. 특히 이날 예배는故 이운형 회장의 50년 지기 벗이자 前 통일부 장관 김하중 장로가 직접 인도하여 더욱 큰 울림을 주었다. 연단에 오른 김하중 장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이운형 회장이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하나 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겸손한 자세로 서로 사랑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 받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이 되시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하중 장로는 여전히 친구 이운형의 부재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 아련한 눈빛으로 그를 추억하면서, “50년간 이운형 회장을 만나면서 그가 남을 유혹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항상 남을 사랑하고 잘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여 이운형 회장의 높은 인품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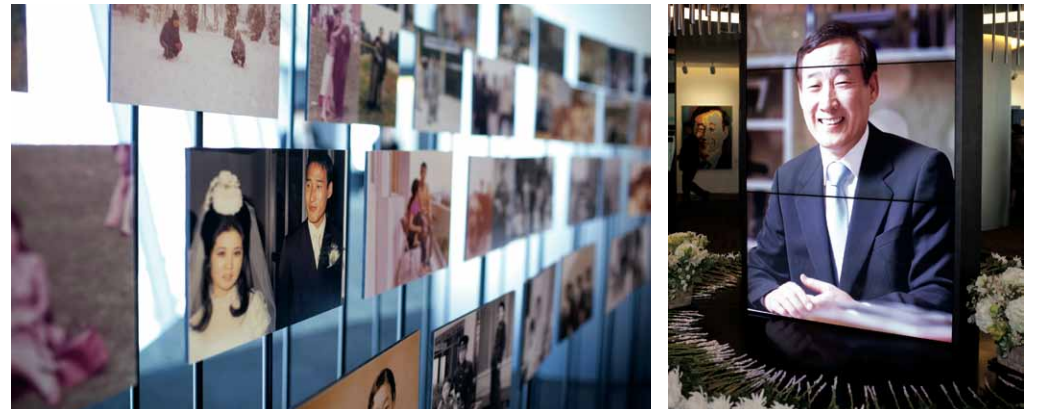


입체적으로 되짚어 보는 그의 삶, 그의 꿈

이날 추모객들은 추모 예배가 끝난 뒤故 이운형 회장의 사진전 〈In Loving Memory of Woon-Hyung Lee〉를 보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여 추모 행보를 이어나갔다. 세아타워 4층에 마련된 추모 전시회는 예술과 오페라를 사랑한 예술 애호가로서의 삶, 경영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따뜻한 휴머니스트로서의 삶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운형 회장의 삶을 재조명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사진전에는 이운형 회장의 어린 시절부터 군대 복무 시절, 학창 시절을 비롯하여 부부 간의 다정한 모습까지, 경영인이자 아들, 남편이자 부모로서 행복하고 의미 있었던 그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됐다. 참석자들은 사진 속 이운형 회장의 모습을 애뜻하게 바라보고 사진에 얹힌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를 추모했다. 추모 공간에는 사진전 외에도 헌화 공간을 비롯하여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해 이운형 회장의 생전 육성 인터뷰를 들려주는 패널, 영상 패널, 주력 매체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 패널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일대기와 경영 철학 등을 전시했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전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전시 내용을 밀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람의 덕과 가치는 만년 동안 향기롭다

또한 각 계열사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세아그룹 남성합창단이 추모의 마음을 담은 찬송가 ‘기억하라’를 합창했다. 이어 이순형 회장이 가족 인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섰다. 이순형 회장은 “당신이 사회 곳곳에 남기고 간 체취와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낀다. 그분을 잊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운형 회장을 향한 식지 않는 그리움을 표현했다. 또한 이순형 회장은 ‘화향천리행 인덕만년훈(花香千里行 人德萬年薰)’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꽃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덕과 가치는 만년 동안 향기롭다. 기업인으로서, 휴머니스트로서,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의 궤적은 우리들 마음 속에 오래오래 간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움을 연주하는 추모 음악회... 전원 노개런티 출연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오페라 애호가로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고인의 뜻을 기리는 추모 음악회 〈이운형 Memorial Concert〉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유가족을 포함하여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김영호 일신방직회장,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박영주 이건그룹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비롯, 국립오페라단 이구택 이사장, 박수길 전 단장, 김익준 현 예술감독, 김일곤 대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오페라의 선율을 들으며 그를 추렷했다. 특히 이번 음악회 무대에 오른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 중 렌스키의 아리아 ‘어디로 가야 하는가(Kuda vy Udallis)’,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에 나오는 ‘에우리디체 없이 나 어떻게 살아 갈거나(Che faro senza Euridice)’ 등을 포함한 7곡의 오페라 곡으로 구성된 메들리 ‘지상의 기억과 천상의 메아리’를 시작으로, 이운형 회장이 생전에 즐겨 들던 곡 엘가(E. Elgar)의 ‘님로드(Nimrod)’, 페르골레지(G.B. Pergolesi)의 ‘스타바트 마터(Stabat Mater Dolorosa)’ 등이 공연됐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웅장하게 음악당을 채우는 클래식 선율은 온화하면서도 강렬했던 이운형 회장의 삶과 닮은 점이 많았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테너 이동규, 첼리스트 이강호, 하피스트 곡정, 지휘자 김주현 등 모든 출연진들은 든든한 후원자였던 이운형 회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전원 노개런티로 참여해 음악회의 취지를 빛냈다.



아들 이태성 상무의 헌정사, 신입사원의 다짐

공연 도중 故 이운형 회장의 생전 모습이 영상으로 흘러나올 때에는 추모 분위기가 더욱 깊어졌다. 특히 이태성 상무가 선친을 향한 편지를 읽는 순서에 이르자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다. 그는 “곧 아버가 될 저에게 아버지가, 곧 태어날 저의 아들에게 친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라고 말하면서, “집안의 기둥이 되라고 하신 아버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면 강철처럼 강해지라고 하실 것입니다. 철과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향하여 그리움과 다짐의 편지를 띄웠다. 이어 2012년도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으로서 당시 이운형 회장에게 직접 배지를 수여받은 세아제강 이충원 사원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회장님은 당시 신입사원들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맞아 주셨다. 저희를 바라보시는 회장님의 눈빛에서 따스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희의 자리를 지키고 업무에 정진하겠다.”고 열정을 다짐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명을 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의 유지를 받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것만이 그의 뜻을 받드는 길이고, 하늘에서 그를 만나더라도 아주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 故 이운형 회장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前 통일부 장관 김하중 장로, 1주기 추모 예배 중

더 크고 새로운 시작점에 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이 되자’고 말하며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숭선수범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故 이운형 회장. 이제 그의 향기로웠던 66년의 삶과 메시지는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만드레 흩씨처럼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아름다운 세아를 만들고자 했던 故 이운형 회장의 향해는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큰 닻을 올렸는지도 모른다. 세아인들이 진정으로 그를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바라보고 꿈꾼 것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각자 업무에서 한 뼘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운형 회장을 진정으로 추모하며 그의 뜻을 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 강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다

신입사원의 눈으로 본 <가스텍 2014>

글 세아제강 STS수출팀 배동훈 사원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가스텍(Gastech) 2014>가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세일가스를 옮길 때 쓰는 파이프라인(강관)을 수출하는 선두업체인 세아제강도 이번 전시회에서 단독 부스를 차리고 우리 강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국제 규모의 전시회를 처음 경험하게 된 세아제강 STS수출팀 배동훈 사원의 눈으로 본 가스텍 2014. 그 현장을 따라가 보자.



세계적인 오일 & 가스 회사들의 로고가 눈앞에 펼쳐졌다.

과연 세계 3대 에너지 국제 행사라는

가스텍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다.



step 1 : 두근두근~ 개막 D-7

전세계 주요 가스 관련 업체들 '올해는 한국으로'

국내 대표 건설사와 조선사들을 비롯하여, 세계 EPC(설계·구매·시공) 및 에너지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의 국제가스 행사인 가스텍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전화로만 연락하던 고객사들과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행사가 열리는 것이다. 다른 업체들은 어떤 부스를 차려서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할까? 어떤 홍보 전략을 가지고 나올까? 전시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궁금증은 더 커져간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업체들 사이에서 세아제강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기대된다.

step 2 : 두둥! 축제의 막이 열린다

무조건 많이 보고 배우는 거야

첫 개장일 아침은 어느 부스 할 것 없이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세계적인 오일 & 가스 회사들의 로고가 눈앞에 펼쳐졌다. 과연 세계 3대 에너지 국제 행사라는 가스텍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나의 각오는 '무조건 많이 보고 배우자!'이다. 여기서 얻어가는 정보 하나하나가 앞으로 나만의 시장을 개척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지식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해외 출장을 나가본 적 없는 신입사원으로서, 이번 행사는 실제 내가 담당하게 될 시장의 주요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step 3 : 세아제강의 경쟁력, 야무지게 알리기

한 눈에 들어오는 전략적 부스 설계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부스 상태와 방문객 안내 전략 등을 의논하며 최종 점검에 나섰다. 세아제강 부스의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위해 생산 가능한 최대 강관 사이즈인 197인치 파이프를 모형화하여 복층 구조물을 제작했다. 또한 파이프 구조물 앞에서 그룹을 소개하는 샌드아트 공연을 선보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모이면 부스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관람객을 안내하는 전략을 짰다. 사람들이 부스 안쪽으로 들어오면 특성에 따라 동선을 달리 한다. 세아를 잘 모르는 고객에게는 회사 연혁이 명시된 기동형 구조물로 안내하여 54년의 업력을 소개하고, 최근 세아제강이 인수한 유럽의 스테인리스 업체 이녹스텍(Inox Tech)에 대해 알려 회사의 경쟁력을 강조한다. 그 후 LNG가스 밸류체인(Value Chain)을 형상화한 모형물을 통해 LNG 사업 전체 공정에서 활용되는 세아제강 강관의 품질과 중요성을 소개한다. 그런가하면 이미 세아제강을 알고 찾아온 손님들은 안쪽에 있는 미니바로 안내하여, 벽면에 부착된 각종 인증서와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제품 정보와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당신도 우리의 다음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스의 또 다른 장점은, 부스의 각 면마다 강조 포인트를 넣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어느 쪽에서 접근해도 각기 다른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놓았다. 가로로 누인 원통형 구조물 특성상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는 뒤쪽 면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납품을 해왔던 전 세계 건설사 및 각국 주요 프로젝트 오너들의 회사마크를 활용해 우리 회사 제품의 납품 실적과 품질의 우수성을 드러냈다. 또한 회사 이미지들마다 ‘Your Company’라는 문구를 삽입해 당신이 우리의 다음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작은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행사 직전 주위 상황에 맞춰 발 빠르게 부스를 개조하여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재치를 발휘하기도 했다. 세아제강 옆쪽에 위치한 프랑스 토탈(TOTAL)사의 부스는 관람객들이 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형 부스였다. 이를 미리 파악한 우리 팀은 안쪽에만 있던 대형 스크린을 옆쪽 벽면에 추가 설치하여 토탈사의 벤치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세아그룹 소개 동영상으로 향하게끔 했다. 이 때문에 옆쪽에서도 일부 관람객을 끌어 올 수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시화장을 잘 파악하여 유연하게 대응해서 올린 소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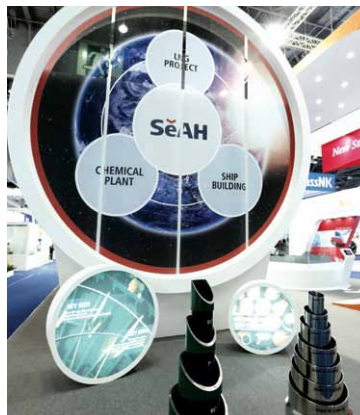
step 4: 브랜드 홍보 & 고객 미팅,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매의 눈으로 업계를 공부하다

미팅과 정보 교류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 회사 홍보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업체마다 부스 설계에도 조금씩 차이가 났다. ‘세아제강’ 부스는 2층에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고객과의 미팅 장소로 활용하고, 샌드아트 공연이나 각종 모형물들을 이용해 회사 브랜드 홍보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합해 균형감을 유지한 형태였다. 전시회의 성격과 첫 가스텍 참가라는 면에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수주의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



step 5: 눈이 번쩍, 귀에 쏙쏙! 세미나에 참석하다

업계의 큰 그림을 보다

전시 마지막 날에는 에너지 산업 종합컨설팅업체인 웨스트우드(Westwood)에서 진행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는 LNG프로젝트 상황과 파이프라인 수요에 대해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대륙별 수요 변화와 수요 예측량, 전 세계 주요 강관제조업체 현황 및 공급체인에 대해 한번에 정리해주는 자료였다. 배울 것이 많은 신입사원으로서 업계의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발표 자

료를 얻고 싶어 세미나가 끝나고 제일 먼저 발표자에게 다가가 명함을 교환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전 세계 LNG프로젝트 현황지도 및 통계자료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금 더 업무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는 뿌듯함도 느꼈고, 앞으로도 공부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는 동기 부여도 되었다.

step 6: 전시를 마무리하며

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하다

수출 업무의 특성상 고객사들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대형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수많은 나라에 출장을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중 다국적 건설사인 페트로팩(Petrofac)을 비롯한 몇몇 업체에서는 실제 구매 담당자와 접촉하여 우리 제품의 납품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는 행운도 따랐다. 특히, 전시회 기간 내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느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LNG플랜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수주의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관련 업체들과 교류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팀이기에, 이러한 세계적인 규모의 전시회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신화를 쓰다



세아 ESAB, 대한민국 최초 Seamless FCW 개발

접합부(Seam) 없는 새로운 FCW 제품의 탄생

기존 FCW 제품은 Tube의 Seam 부(접합부)에 수십 마이크론의 간격 (Gap)을 갖고 있다. 세아 ESAB은 이 Seam 부를 용접처리 함으로써, 용접 중 Seam 부로부터 흘러나온 Flux(Powder)로 인한 용접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Seamless FCW 개발에 성공하였다. 튜브나 파이프 제조 기술자의 시각에서는 Seam 부를 용접하는 것이 무슨 큰 기술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내부에 Flux를 가지는 금속 튜브는 용접이 가해지면 Seam의 양측 끝에 존재하는 Flux로 인해 후 공정 작업의 어려움이 빈번히 야기되고, 설령 완제품까지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품질적 특성을 잃게 되는 위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약 30mm 가량의 대구경 튜브를 만들어 Flux를 바닥에 낮게 깔고 고주파 저항 용접 방식으로 Seamless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잡한 공정 탓에 제조 원가가 높아져 FCW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웠다.

극지방 항해용 선박 및 심해구조물의 제작에

이상적인 용접 재료

이런 와중에 최근 몇 년간 극지방 항로 개발 및 천연 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요가 증가해왔고, 국내 대형 조선 업체로부터 심해 구조물과 같은 극저온 또는 초고압력 환경에서 수소 크랙을 억제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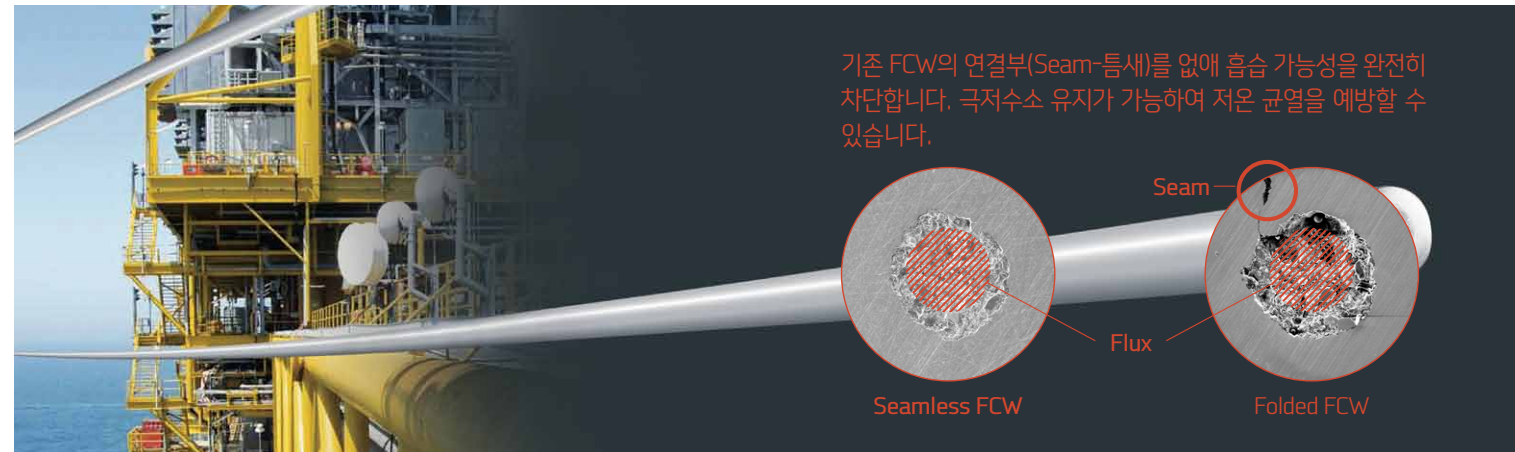
2014년 3월, 세아 ESAB이 Seamless FCW(제품명: Prime Weld)의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며 고객 및 관련 산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신제품 개발은 FCW의 첫 국산화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 Seamless FCW 개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신제품 Prime Weld는 세아 ESAB의 향후 성장 동력의 중심은 물론 국내 조선 해양 산업이 고기술, 고부가 가치 생산체제로 자리잡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수소계 용접 재료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저온에서의 수소 크랙은 용접 금속에 잔류하는 수소원자가 저온에서 금속 입자의 경계면에 집중하여 용접 금속의 연성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다. 미국 용접 학회(AWS)에서는 이러한 저온 수소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100g의 용접 금속 내 4ml 이하의 수소함량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FCW로도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이는 생산 시점에서의 수준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세아 ESAB이 새로 개발한 Prime Weld는 대기 중의 수분이 Flux 내부에 침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때문에 저수소계 용접 재료의 요구사항에 이상적으로 부합된다.



획기적인 개발 공정의 청사진을 그려내다

세아 ESAB은 창립 이래 줄곧 국내 최초 FCW생산자로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국내 경쟁사의 맹렬한 도전으로 FCW 양산품에 대한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다. 조선업의 호황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 무렵부터 세아 ESAB은



기존 FCW의 연결부(Seam-틈새)를 없애 흡습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극저수소 유지가 가능하여 저온 균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 양산 제품으로는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다는 인식을 갖고 연구의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장차 국내 조선업계가 대형 선박에서 해양구조물로 그 중심을 옮겨갈 것이라는 경영진의 예측대로 경기 불황과 더불어 조선 산업의 급격한 재편이 시작되었으며, 세아 ESAB의 연구 중심도 점차 극한의 상황에 필요한 용접재료의 개발로 무게가 옮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엔드급 재료의 개발은 앞선 기술 수준과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탓에 시장의 수요가 미처 따라오지 못해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0년 이후, 비용 문제로 현장 적용을 미뤄왔던 Seamless Wire에 대한 Needs가 국내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구상 단계에서 맴돌고 있던 Seamless Wire에 대한 개발이 대표이사의 강력한 지시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후 외국업체들의 제조방법 등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 동향을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의 방법으로는 시장을 이끌 만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힘들다는 결론 밖에 얻어낼 수 없었다.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우리가 가진 장점에 집중해보자는 쪽으로 연구 방향을 선회했다. 애당초 우리가 FCW를 최초로 생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관 기술에 대한 그룹사의 뛰어난 노하우가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후 각 그룹사의 공정을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게 되었고, 그 관찰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응용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공정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전 어느 누구도 FCW 제조 공정에 도입하려 생각

조차 못한 방법을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시도하였고,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주로부터 “Break-through”라는 찬사를 받은 공정이 탄생되었다. 이후 세아 ESAB은 이 제품에 ‘Prime Weld’라는 특별한 브랜드 네임을 부여했다.

고객사의 작업비용 절감 효과...

유럽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아

세아 ESAB의 ‘Prime Weld’는 획기적인 설비개발에 따른 구조적 장점으로 인해, Flux로 인한 용접 결함이나 제품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품을 빠르게 제조하여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용접 재료 시장은 현재 저가 전쟁이 치열하지만, 해양 구조물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이며, 공정이 까다로워질수록 가격보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우선 시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일단 당사 Seamless FCW의 우수성이 고객에게 검증만 된다면 시장성은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재작업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전체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Seamless FC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잠재적인 해외시장의 팽창에 대한 기대도 크다. 많은 도전이 앞으로의 과제로 주어졌다. 현재 세아 ESAB의 연구원 전원은 단기간 내에 달성할 각자의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여 Prime Weld를 새로운 시장의 기술 선도 제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개발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철강제조 기업에서 기업시민으로

세아의 사회공헌 활동기록

창업주인 해암은
“기업이 커지면 이미 그 기업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국민의 기업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를 통해 창출한 기업 가치를
다시 사회를 번영시키는 데
환원한다는 그의 의지는
다양한 학술지원과
장학사업 및 기부활동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세아의 기업문화로
쉽 없이 이어져 왔다.



장학생 하계 수련회(2013년)

아낌 없는 장학사업 및 학술지원

평소 해암은 회사의 성장 기회와 터전을 제공해 준 사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1992년 12월 해암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설립 목적을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육성’이라고 밝힌 재단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장학금 지원 활동 및 학교 도서 지원, 학술연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학술지원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1993년 8월 한국국제경영학회의 지원을 시작으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개발연구협의체 등 학술연구단체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아해암학술상’을 제정하였다. 세아해암학술상은 금속재료 관련 연구 분야에서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금속 관련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일상에서 나누는 기부문화

세아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4주간 “세아와 함께하는 생활 속의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세아의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 커피, 간식, 담배 등 일상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모금한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다. 일명 ‘도시락 Day’에는 도시락이나 간단한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남은 비용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아는 ‘개인나눔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목표 나눔 금액, 목표 달성여부 등을 적도록 하여 임직원들의 체계적, 지속적 기부활동을 도왔다. 그룹 차원의 꾸준한 기부활동을 인정받아, 세아는 사랑의 열매로부터 ‘희망 2012 나눔캠페인’ 1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제3회 세아제강컵 여자챌린저 테니스 대회(1998년)



창작 오페라 '천생연분' 공연(2006년 10월)



장학증서 전달식(2008년)



세아제강 사랑의 헌혈

예술, 스포츠 등 문화활동에도 앞장서

1996년에는 ‘제 1회 세아제강컵 세계 여자 챌린저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신문사의 취재와 TV 생중계 등으로 각계에서 높은 관심을 불러모았고 세아가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기업시민으로서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세아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국립오페라단을 후원하면서 정기 공연이 자리 잡는 데 일조하였으며, 연간 7편 이상의 대형 정통 오페라와 창작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다. 이 외에도 ‘한국 페스티벌 앙상블’과 ‘예술음악무대’ 등 크고 작은 여러 예술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히 세아는故 이운형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2013년 재단법인 ‘이운형문화재단’을 정식 출범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예술단체를 적극 후원할 예정이다.

감사와 겸허에 바탕을 둔 나눔활동

세아는 이 밖에도 2008년 세아그룹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전국 곳곳의 사업장과 자체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자발적 실천들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북한 어린이돕기, 해외 재난 구호성금, 사랑의 헌혈 활동 등 동포애와 인류애에 바탕을 둔 기업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 감사와 겸허의 정신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고 실천했던 창업주 해암. 그가 뜻한 바대로 세아는 주력사업인 철강 제조를 통한 산업발전을 넘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INOX TECH
LENDINARA

에너지 Up! 시너지 ing!

여기는 이탈리아 이녹스텍 현장입니다

카톨릭의 성지가 있는 나라, 패션과 오페라의 본고장, 중세의 건축물과 미술품으로 대표되는 관광지 등 우리가 지금껏 이탈리아에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미지는 대개 역사와 문화, 여행의 카테고리에 속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세아에게 '이탈리아는 이녹스텍이 있는 나라'라는 새로운 정의가 추가되었다. 지난 2월 10일 인수 계약을 통해 이탈리아 특수강관 업체 이녹스텍(Inox Tech)이 세아제강과 가족이 된 것. 그 곳에 파견된 세아홀딩스 미래전략파트 장진수 수석에게서 현지의 소식과 전망을 듣는다.

교역 및 자원확보에 유리한 이탈리아 북동부

이녹스텍(Inox Tech)은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Veneto) 지역 렌디나라(Lendinara)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는 농업 및 관광 중심인 남부에 비해 서부 유럽과의 교역이 수월한 지정학적 위치, 알프스 산지의 풍부한 수력전기의 자원 등 환경적인 이유로 중공업, 금융, 패션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지요.

25년의 역사를 지닌 이녹스텍은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을 제조하는 글로벌 선두업체입니다. Shell, BP, Exxon Mobil 등 메이저 Oil & Gas 개발업체들이 주요 고객들이며, 스테인리스 강관 중에서도 소구경 후육관이나 Duplex / Nickel alloy 등 고부가가치 제품영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스테인리스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기존 고객군을 바탕으로 중국거점 확대 및 신제품 개발(Clad Pipe)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강한 회사입니다.

특히 2000년부터 집중적 투자를 통해 매출을 3배 이상 확대시켜 왔습니다. 이런 알짜 기업을 모기업인 론다(Ronda)가 매각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투자실패 및 계열사 누적적자로 더 이상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M&A 효과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

기존 모기업과는 달리 규모가 크고 재무구조가 든든한 세아제강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점에서 M&A에 대한 이녹스텍 현지의 임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서로 장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요. 반면, 기존의 작고 단조로운 조직구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던 강점인 높은 고객 대응력과 유연성이 대기입화되면서 약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 또한 M&A 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의 강점과 문화를 담은 통합으로

현재, 저는 이곳에서 PMI(Post-Merger Integration)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MI는 이녹스텍과 세아제강이 인수 이전에 기대했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고, 어떤 관리체계 및 조직구조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업무 외에도, 이녹스텍 경영진과 운영 인력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PMI는 단순히 동종업계 두 회사의 통합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이탈리아 문화와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녹스텍이 이미 글로벌 선두회사이니 만큼 세아제강의 스타일을 고집하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먼저 관리 및 리포팅 부분이 진행되고,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두 회사의 영업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구매 등 영역별 통합 확대를 통해 기대하는 시너지를 최대화해 갈 예정입니다.

오일, 가스 시장의 문을 여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

특수상관 수요가 급성장하는 시장상황과 신항자원부국의 자원 개발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번 이녹스텍의 인수는 세아제강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녹스텍은 전세계 오일 및 가스회사, EPC 업체에 벤더 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가 예상되는 오일 및 가스 프로젝트의 시장 진입의 문이 크게 열린 셈이죠. 기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강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보수적인 시장이라 진입장벽이 높았던 오일과 가스 분야에 크게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인 차이로 그 동안 진입하지 못했던 유럽 시장에 거점을 확보, 유럽 수요처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1=∞ 무한의 가능성을 보다

이번 인수가 갖는 또 하나의 가치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대입니다. Super Duplex, Nick Alloy 등 고급강, 고기능 제품에 대한 생산 노하우 확보를 비롯하여 미래 성장산업인 Clad 제품 생산 및 설비기술 역시 손에 넣음으로써 개발의 속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아제강과 이녹스텍 두 회사의 기능을 통합하고 각 거점의 특성을 살린 최적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사업 경쟁력도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내부인력 주도로 진행된 이번 M&A를 통해 향후 또 다른 M&A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 역량을 강화했다는 것 역시 세아제강의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녹스텍은 LNG 및 Offshore 개발 확대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된 Clad 제품의 확대가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전략과 운영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인수합병의 효과는 무궁무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파견 기간 동안 이녹스텍과 세아제강의 M&A가 단순히 '1+1=2'가 아닌 무한대가 될 수 있는 전략과 운영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전하는 생생토크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식당

이탈리아에서 외식을 하면 보통 저녁 이전에 아페르티보(Aperitivo)라며 술을 1~2잔 마시고, 8시 이후에 저녁식사를 시작합니다. 그 이전엔 어떤 식당도 문을 열지 않는답니다. 주문만 30분이 걸리니, 와인 한 두잔 하면서 전채요리, 1차 메인요리, 2차 메인요리, 후식, 커피까지 마시고 나면 보통 11시가 넘어야 끝난답니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지칠 대로 지쳐서 식당을 나오게 됩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식 직장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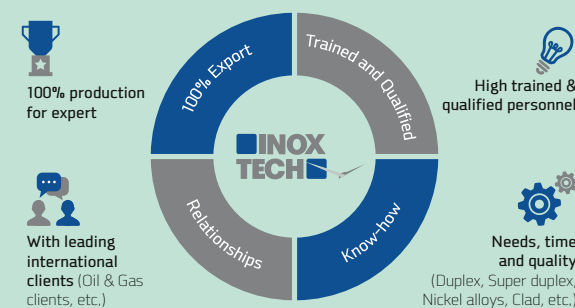
이녹스텍 직원들은 시골에 위치한 작은 사업장의 직원들답게 순수하고 때론 어설픈기도 하지만, 장인정신의 나라 이탈리아답게, 글로벌 선두업체 직원들답게 전문성과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놀랍기도 합니다. 한편, 이탈리아 사람들은 직장생활과 개인생활을 분명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야근문화와 회식문화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라고 하네요.

1시간 거리에 축제의 도시, 베니스가 있어요

이녹스텍이 위치한 렌디나라는 분명히 아주 시골지역이지만 북동부 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베니스, 밀라노, 피렌체 등 큰 도시로 다녀오기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베니스와는 1시간 거리라 아주 가까운 편입니다. 베니스는 이탈리아 최대의 축제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베니스 카니발>이 열리는 도시로 축제기간에는 이를 보러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과形形色색의 고깔모자, 가면들이 도시의 좁은 골목마다 가득 찬다고 합니다. 꼭 이 때가 아니라도 거리 공연을 비롯하여 곤돌라 탑승 등 보고 즐길 것이 많은 베니스는 언제나 축제 같은 도시랍니다.



New Member of SeAH Family



세아메탈 원주공장 품질경영팀 — 0.001의 차이를 관리하는 사람들

대내적으로는 생산 부서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에 책임을 지고, 대외적으로는 고객사의 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하는 품질경영팀.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 특성상, 품질경영팀에게 주어진 역할은 더없이 까다롭다. 오늘도 높은 책임의식과 배려심으로 무장한 품질경영팀 식구들이 있어 세아메탈 원주공장의 품질 수준은 날로 진화하는 중이다.

고객사도 감탄한 세아메탈 원주의 품질경영 능력

지난 2011년 5월, 세아메탈 원주공장 측은 주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SQ 심사(Supplier Quality, H사의 협력사 품질 인증 시스템)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심사일은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세아메탈이 고객사에 납품하는 부품이 최종적으로 H사로 납품되는데, 세아메탈이 주요 2차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심사 일정에 세아메탈은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다. “그때는 이미 고객사에서 수주를 받아놓고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심사에서 떨어지면 이미 생산한 제품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결과적으로 세아메탈 원주공장은 SQ 인증을 한 번에 따내는 데 성공했다. 놀란 쪽은 고객사였다. “SQ 인증은 한번에 따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따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고객사도 놀라워하더군요. 세아에는 다른 회사와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관리 단위는 0.001,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다

세아메탈은 스테인리스 선재와 자동차 부품 사업 전문 계열사로, 원주공장에서는 자동차 랙바(Rack Bar, 핸들의 회전운동을 좌우 왕복 직선운동으로 전환해주는 자동차 조향 장치의 일부분)와 피니언 샤프트(Pinion Shaft, 핸들의 회전 운동을 랙바에 전달시켜주는 상대 부품)를 만든다. 그 중 자동차 랙바는 국내 생산량의 60%가 세아메탈에서 생산되고 있을 만큼 시장점유율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만큼, 이들의 품질관리 수준은 상당히 까다롭다. “만약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핸들 작동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품질 관리 수준이 보통 0.001 수준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준이죠.” 이렇게 높은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 제품 품질을 관리하며, 대외적으로는 고객사의 품질 불만을 가장 먼저 접수하고 해소시키는 일이 품질경영팀의 몫이다. “내부적으로는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문제를 개선하고, 정말 품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표 주자로 나서서 고객사에게 ‘욕도 먹고’ 해명도 해야 해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납득시켜야 하죠. 다행히 생산설비팀에서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저희가 워낙 철저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고객 불만이 거의 없어요.”



높은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

제품 품질을 관리하며, 대외적으로는

고객사의 품질 불만을 가장 먼저 접수하고

해소시키는 일이 품질경영팀의 몫이다.



우리는 제조업계의 뉴런(Neuron)

품질경영팀 고동일 과장은 팀의 특성을 '뉴런'에 비교한다. 뉴런이 외부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빠른 속도로 뇌에 이상 신호를 보내듯이, 품질경영팀도 외부 상황을 내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부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품질경영팀은 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객사와 친밀한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이들의 장점이다. "저희는 고객사에서 공장을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응대합니다. 주기적인 방문 일정 외에도 고객사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오거나, 신입사원 교육 차원에서 방문하기도 해요. 유관부서에서는 고객사 방문이 많아져서 난리예요. 고객사에서 오면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이 더 가니까요. 하지만 저희 공장은 평소 관리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은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넘기는 데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객과 유대감이 잘 형성돼 있으면 사소한 문제들은 소통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때가 많아요. 제품 품질뿐 아니라 감성품질까지 갖춰야 하는 게 우리 일이지요." 또한 품질경영팀은 유관 부서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품질결의대회를 개최해 품질 관리에 대한 전직원적인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현재 세아메탈 원주공장의 불량률은 계속 하락 중이다.

이심전심 마인드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주공장의 품질 관리가 순항을 타기까지는 품질경영팀 사람들의 강한 책임감과 배려심이 있었다. "저희가 2교대 맞고대라 업무가 타이트하게 돌아가는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들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일을 해줍니다. 현재 발생된 문제만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들까지 개선하고 또 개선해서, 고객사에서 우리를 신뢰하는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랙바 R-EPS 가공 공법은 국내 최초 생산이라 고객도 걱정이 매우 많은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초창기 불량 1건을 제외하고 1년 간 사외 불량이 제로입니다." 날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품질경영팀. 요즘 품질경영팀이 가장 깊게 생각하는 화두는 '소통을 통한 이심전심'이다.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아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말에 고동일 과장은 이렇게 전했다. "우리 세아메탈이 그룹사 전체로 보면 규모는 작지만, 내실이 튼튼하고 조직이 상당히 유기적이고, 건승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경은애 애도 커가고 경제적으로도 마음도 점점 힘들지? 고생 많은 거 아는데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이 잘 안 되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힘들어도 우리 항상 이겨내며 행복하게 살자. 묵묵히 힘든 하루를 이겨내고 즐겁게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랑하는 은경이와 성호에 대한 무언의 표현임을 기억해줘.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 김규선 사원



사랑하는 민준 엄마, 당신만 생각하면 정말 고맙고 또 마음이 찼해요.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혼자 애 낳고 혼자 키우고. 정말 대단해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인 당신, 사랑해. 그리고 세아가족과 품질경영팀 식구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 고동일 과장



장삼덕 조장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저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의 마음 깊이 간직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사원



“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 따뜻한 말 한 마디



세아메탈 2공장 분위기 메이커 광정훈 형,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저의 빛나는 동안 얼굴 때문에 친구처럼 보이죠. ㅎㅎ 매일 웃는 얼굴로 대해 주셔서 하루가 즐거워요. 요즘 헬스하시는데 보기 좋습니다. 몸짱이 눈앞에 있네요, 형. 화이팅!

- 지승배 사원



추운 날씨에도 땀 흘려 일하는 생산설비팀 송상일 기사, 부서 간 업무 차이로 인해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해줘서 고마워요. 일하는 동안 서로 해결해야 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본인의 장점을 살려 함께 파이팅해요.

- 안영기 기사



사랑하는 나의 아내 희,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꽃 한 송이 못 챙겨줘서 많이 미안해. 나 하나 믿고 지방까지 내려와서 혼자 곳곳이 잘 지내줘서 고맙고, 앞으로 서로 더 배려하고 열심히 사랑하자.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세아메탈 원주공장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세종 기사

측정실에 제일 자주 오시는 생산설비팀 창선이 형, 항상 밝은 모습 보기 좋아요! 일도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조만간 불량 한 게임하고 밥 한 끼 사주세요. 세아메탈 화이팅! 품질경영팀 사랑합니다!

- 한태규 사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함께 해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세아메탈 품질경영팀에서 10년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아메탈에 나의 삶을 정착시켜준 동료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장삼덕 조장



문재석 과장 (EPC 등 전략제품 전담)

기술력을 겸비한 전략제품
영업의 선두주자

최재일 대리 (국내 및 해외 업무 담당)

최근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영업의 젊은 피

민태준 이사 (영업 총괄)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회사의 등대 같은 분

심세훈 PL (일선 업무 총괄)

후배의 일을 세심하게 짚어주고
알려주는 배려의 아이콘

김영남 사원
(국내·외 상품과 영업관리)

타고난 꼼꼼함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영업팀의 살림꾼

김현중 대리 (중국 업무 전담)

중국 전문가로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이 강점

세아엔지니어링 대전공장
터보사업부 영업팀

치밀하게 준비하고
거침없이 도전한다

국내 최초 터보압축기를 개발 및 상용화한 이래, 위기를 언제나 기회로 바꾼 사람들.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이들에게 변명거리가 아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긍정의 요소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세아엔지니어링 대전공장 터보사업부 영업팀을 만났다.

엔지니어 출신 영업맨들 대거 포진

세아엔지니어링 터보사업부 영업팀은 영업 및 기술 미팅이 모두 가능한 인력들로 구성돼있다. 터보압축기 시장 특성상 기술 영업이 기본이기 때문. 그래서 영업팀 사람들 대부분은 기술팀에서 경력을 쌓고 온 이들이다. 올해 임원 승진한 민태준 이사를 필두로 국내 영업 일선업무를 총괄하는 심세훈 PL(차장), EPC营业을 담당하는 문재석 과장,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김현중 대리, 국내 및 러시아와 동남아 영업을 담당하는 최재일 대리, 상품과 영업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남 사원 등 5명이 함께 향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일한 기간이 10년이 넘는 이들이 많다 보니,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일하고 있다고. 김현중 대리는 팀의 특징으로 유연성을 꼽았다. “틀에 박혀 있는 팀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중시하면서 유연하게 일하는 팀입니다.”

공기·가스·스팀 압축기 등
압축기 국산화를 이끌다

세아엔지니어링 대전공장의 역사는 국산 압축기 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1995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터보압축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터보압축기 국산화 시대를 활짝 연 이래, 가스압축기와 스팀압축기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우리나라 압축기 시장을 선도해왔다. 압축기란 말 그대로 공기나 가스, 스팀 등을 압축하는

기계로, 각종 자동화기계 및 생산설비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쓰인다. 특히 세아엔지니어링의 주력모델인 터보압축기는 초당 회전수가 약 1000회에 달하는 초고속 회전 기계로, 포스코, 발전소, 조선소 등 대규모 사업장이 주요 고객이다. 무엇보다도 세아엔지니어링만의 독특한 차별점은 그룹에서 유일하게 기계 완제품을 생산해낸다는 점이다. “다른 계열사는 파이프 등 소재를 생산하는 철강 그룹사인데, 저희는 계열사 중에 유일하게 기계 완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심세훈 PL의 말이다.

놓칠 수 없는 중국... 전세계 업체들 각축전 치열

또한 세아엔지니어링 영업에 대해 논할 때 수출에 대한 화두를 빼놓을 수 없다. 세아엔지니어링 매출 비중의 35%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거니와, 현재 전세계 터보압축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 세아엔지니어링도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터보압축기 시장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터보 압축기 공급 업체들이 중국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격과 품질 면에서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업 담당자인 김현중 대리도 눈빛을 빛낸다. “중국은 시장이 크고, 기회의 땅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게 돼요. 3~4년 안에 계단처럼 올라갈 시장입니다.” 2006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세아엔지니어링은 현재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에 압축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면서 영업팀 전원은 각자 영어, 중국어 등 어학 공부 삼매경에 빠져있다.

조직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

영업맨으로서 가장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때는 당연히 수주에 성공했을 때이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최근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당사 단일 수주 금액으로 최대 규모인 52억 원을 수주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삼척화력발전소와 신보령1, 2호기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던 것, 성동조선해양에서 초기 수주를 한 후, 총 36대를 연속으로 공급한 것도 보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가하면 세아가 장치 사업을 한다는 점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 고속회전체 기술에서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해외 선진업체들과 기술력 차이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아엔지니어링은 선진사들과의 기술력 간극을 좁혀가는

노력과 함께, 고객 만족 최우선 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소수정예 정신과 빠른 결정력이 저희 장점입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돌격 앞으로’ 정신으로 나가죠. 생산설비, 가격, 품질, 납기에서 최대한 고객의 눈에 맞추고 있습니다.” 문재석 과장은 이렇게 강조한다.

2013년 12월 1일 세아 E&T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출발한 세아엔지니어링. 세아엔지니어링 영업팀의 단기 목표는 올해의 영업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함께, 중국에서의 라이선스 생산, 그리고 올해 안에 러시아 시장에서 첫 오더를 따는 것이다. 품질에서 당당하고, 가격경쟁력을 가지며, 주인의식으로 무장해서 수년 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터보기기 전문 회사로 나아가겠다고, 그래서 조직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이들은 힘주어 강조한다. 그룹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정비 관련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우리나라 터보압축기의 성장을 이끌어온 세아엔지니어링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써 나가기를 모든 세아인들과 함께 바라본다.



“판단 배경, 과정을
직원과 공유합니다”

세아엔지니어링 영업팀
민태준 이사의
공감대 경영

평소 직원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기반기술 자체가 항공기 기술(고속 회전체)입니다. 선진사들에 비해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기술 미팅이든 영업 미팅이든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에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통솔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일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전후 관계와 그렇게 판단한 배경을 직원들에게 설명해줍니다. 부담은 좀 됩니다.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제가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보다 경험이 더 있으니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 간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업팀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지요?

영업팀인 만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영업환경이 치열해졌고, 경영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로컬 업체가 생기고 있고, 계속 성장했던 중국이 정체 내지 꺾어지는 상황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핵심 역량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장점을 살려서 가격과 품질 부문에서 방향을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영업팀 직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

항상 팀원들을 생각하면 가족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경쟁사보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항상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대장장이들의 합주

세아베스틸 사내 동호회 밴드 더 스미스 (The Smith)

전기로에서 펄펄 끓고 있는 쇠물의 에너지를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떤 장르의 곡일까?
발라드나 재즈일 리가 없다. 락이 아니고서야 폭발하듯 뜨거운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을 리 없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는 그런 음악을 하는 이들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밴드의 이름도 대장장이란 의미의 더 스미스(The Smith)라고 한다.
뜨거운 열정을, 즐거운 에너지를 뽐내내고 있는 대장장이들을 만나고 왔다.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다

2012년 9월에 결성했으니 1년 반 남짓 되었다. 회식 자리에서 “최성복 차장이 기타를 제법 친다”는 이야기에 “그럼 밴드 한 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이 자용 전무님의 제안이 더 스미스의 출발이었다. 한철호 부장의 지원 하에 단조파트의 양정순 과장(회장, 보컬)과 품질보증팀 최성복 차장(기타)이 이내 의기투합했고 멤버를 모으기 시작했다. 음악 좀 해 본 친구를 찾아 수소문한 끝에 생산관리팀 나병우 과장과 품질보증팀의 이호영 사원(베이스 기타)이 합류했다. 여기에 군악대 출신의 제품연구센터 황선욱 연구원(드럼)에 이어, 2013년 7월 영업팀 최혜영 사원(키보드)이 들어오며 현재 더 스미스의 구성원이 모두 모였다. 황선욱 연구원은 처음엔 ‘그냥 한 번 해보자’라는 가벼운 기분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언제든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 했으면 후회했을 것”이라고 할 만큼 더 스미스의 나날이 즐겁다.

더 스미스의 대원칙은 연습 또 연습

밴드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가정의 날인 수요일 퇴근 후에 모여 합주를 한다. 평소 각자 연습한 것을 모여서 맞춰보는 것.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곡을 충분히 연습해 오자”라는 것이 더 스미스의 불문율이자 대원칙이다. 한 사람이라도 연습을 소홀히 해오면 합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임 전날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12시나 1시까지 연습을 하고 잔다”는 최혜영 사원. 기타의 나병우 과장은 새벽 2시에 연습 동영상 찍어 보내오기도 한다고. 가족들에게 눈치도 보인다. 명색이 가정의 날인데 가정은 등지고 밴드 연습이라니, 타박을 들어도 별 수 없는 노릇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 양정순 과장은 “임신한 아내에게 아이 돌보는 일과 집안 일을 맡긴 채, 밴드 연습을 하려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뿐”이라며 “주말엔 무조건 봉사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서로 다른 매력의 악기로, 하나의 호흡을 연주하다

양 과장은 대학시절 밴드 동아리를 비롯해 인디 밴드 활동을 하면서도 보컬을 맡았었다. 전북지역 노사가요제에서도 수상한 바 있는 실력파 보컬리스트이다. 그는 리드 보컬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밴드를 리드하는 사람’이라며 모든 파트가 내는 소리를 듣고 밴드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다. 최혜영 사원은 “여러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 다른 악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메워 줄 수 있다”는 것을 키보드의 매력으로 꼽았다. 나 과장은 “기타는 밴드 음악의 색을 결정해주는, 음식으로 따지면 주재료와도 같은 악기”라고 말한다. 그런가하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듯 드럼은 음악에 생명감을 주는 악기”라고 말하는 황선욱 연구원. 이호영 사원도 “베이스가 없으면 밴드 음악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자 다른 매력을 지닌 악기들이,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어떻게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일까? 더 스미스의 찰떡 호흡이 주효했다. 최성복 차장은 “서로 맞춰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배운다”고 말한다. 설령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함께 즐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호영 사원 역시 음악의 합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양과장님이 리더로서 잘 이끌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Smith>의 동호회 소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절도 고충도 노력으로 뛰어넘다

고충도 많았다. 무엇보다 악기를 놓아두고 연습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여기 저기 찾아 다녀서 어렵게 군산대학교 밴드 동아리의 방을 빌려 쓸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스미스를 결성한 그 해, 폭우와 장마에 지하 연습실은 물에 잠겼고 한동안 또 연습 공간이 없었다. '밴드 활동을 접어야 하나'라는 고민도 잠시. 양정순 과장은 다시 발품을 팔았다. 군산 시내의 한 락카페에서 연습 공간을 내어주었다. 카페 무대에 설 기회도 몇 차례 얻었다.

저마다 회사에서 본연의 업무로 바쁘다 보니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음악에만 치우쳐 업무는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는 왜곡된 시선으로 보여질까 우려도 된다. 하지만 시간의 제약도, 주변의 오해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힘은 결국 더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 모이면 목표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늦도록 연습했다. 업무도 충실히 하려고 더욱 신경 쓴다.

서로 모니터링 해주는 것이

실력의 비결

양정순 과장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으로 "서로 연습을 통해 차츰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를 꼽았다. 처음엔 소음에 불과하던 불협화음이 차츰 음악으로 들리기 시작했을 때 무척 기뻐했다고 나과장도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 될 때,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씩 완성해 간다는 성취감이 크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선욱 사원은 "혼자서 듣는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 100이라면 밴드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100"이라고 말했다. 음악을 온전히 즐기 위해서는 그 음악 속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 혼자서 연습할 때보다 함께 하는 음악이 실력을 키우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고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어서이다. "더 스미스에 들어오기 전에는 대학시절 기타 몇 번 만져본 게 전부였다"는 이호영 사원은 "여기 와서 베이스 기타를 걸음마부터 배웠다"고 한다. 1년 반 사이에 익힌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의 연습 비결 역시 더 스미스 멤버들간의 모니터링은 아닐까.

밴드효과는 업무에도 이어진다. 양 과장은 밴드 활동을 통해 리더십이 커지는 걸 느낀다고 한다. 하나의 곡을 정하고 연습하고 공연하는 과정이 업무 과정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과 닮아 있다고 한다. 최성복 차장 역시 "밴드 내에서는 직급도, 나이차도 상관없이 그저 동료다. 격의 없이 음악적인 견해를 나누는 일상이 업무적으로도 이어져 평소 부서 내에서 직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세아를 대표하는 밴드가 되고파

밴드활동을 하며 가장 좋았던 기억을 묻자 멤버들 대부분이 지난해 12월 세아타워에서의 공연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혜영 사원은 "공연 후 반응이 좋았고 이제 더 스미스가 먼저 알고 찾아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열심히 연습한 시간,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았다"고 말한다. 최 차장도 "원래 개개인의 취미활동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시작 한 동호회가 어느덧 세아베스틸을 대표해서 다른 계열사 임직원 앞에서 연주하게 되었다"며 감격에 겨워했다. 이날 공연으로 이승희 부회장님의 격려금도 받았다. 더 스미스는 꼭 필요했던 앱 2개를 장만할 수 있었다. 이지용 전무님 또한 키보드를 새로 기증하여 더 스미스의 활동을 지원해 주셨다. 더 스미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추가로 2기 5명의 회원이 더 늘었다. 양정순 과장은 앞으로의 동호회의 목표를 묻자 "우리 팀의 실력을 가늠해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기회가 있다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며 쌓은 실력을 다른 밴드들과 겨뤄보고 싶다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경험이 될 것이고 잘하는 팀들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어떤 곡이든 무리 없이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우고 싶다. 세아베스틸을 대표하는 밴드, 더 나아가서는 세아그룹을 대표하는 밴드가 되고 싶다."는 더 스미스 멤버들. 그들이 세아가족 모두에게 락의 뜨거운 에너지를, 즐거운 기운을 전하는 밴드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Bass Guitar
이호영 사원 (품질보증팀)

▲ Drum
황선욱 연구원 (제품연구센터)

▶ Vocal
양정순 과장 (단조파트)

▶ Guitar
나병우 과장 (생산관리팀)



▲ Keyboard 최혜영 사원 (영업팀)
▶ Guitar 최성복 차장 (품질보증팀)

플라워 아트 체험 — 향기로 전해지는 감사와 행복

세아 ESAB 국내영업팀 서울사무소 이상민 대리 & 세아베스틸 인재개발팀 임세현 사원



플라워 아틀리에 근처에 이르자, 달콤하고 짙은 꽃향기가 한달음에 달려 나왔다.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호사스러운 꽃향기에 문득 행복해진다.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귤색 등 온갖 색을 머금은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난 플라워 아틀리에, 이곳에서 세아 ESAB 국내영업팀 서울사무소 이상민 대리와 세아베스틸 인재개발팀 임세현 사원이 플라워 아트 체험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에 꽃을 만지는 즐거움을 제대로 알게 됐다면 환하게 웃었다.



살아있는 꽃을 보고 만지니 힐링이 절로

꽃을 만지거나, 바라보는 이들의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눈빛이 맑고 표정이 편안해지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생기 가득한 자연의 질감과 향기를 가장 가까워서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꽃과 친해지는 것이다. 이날 세아 ESAB 이상민 대리는 꽃다발을, 세아베스틸 임세현 사원은 헤드 드레스(화관)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이상민 대리부터 체험에 나선다. 잎사귀들을 정리한 다음, 모든 꽃들이 교차되는 포커 포인트를 정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나선형 계단이 돌아가듯 꽃을 잡아나간다. 점점 꽃다발 모양이 잡히자 이상민 대리의 얼굴에도 꽃이 피었다. “선생님, 여기 자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와서 플라워 아트를 하면 정신 건강에 좋겠는데요?”라며 활짝 웃는다. “사람이 꽃을 만지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플로리스트가 웃으며 화답한다.

이번엔 임세현 사원이 헤드 드레스를 만들어 볼 차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체험이지만, 차분한 성격을 십분 살려 꼼꼼하게 모양을 잡아나간다. 라넌쿨러스와 미니장미의 줄기를 잘라내고 머리 부분을 남긴 후, 꽃 밑단에 십자 모양으로 철사를 관통시켜 꽃심을 만든다. 그런 다음 플로럴 테이프를 철심을 빙빙 돌려가며 감싸주고, 준비해 놓은 레이스에 꽃을 차례로 올려 고정시킨다. 그 위에 아이비를 얹고, 길다란 호엽난을 끈 삼아 고정시키면 끝! 내내 차분하고 조용하게 만들기에 열중하던 임세현 씨도 점점 헤드 드레스가 화사한 모양을 드러내자 연방 “예쁘다”를 외치며 눈을 반짝였다. 꽃을 보던 이들의 표정은 어느새 꽃을 닮아있었다.

오늘 체험에 참가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이상민 * 세아 ESAB에서 가장 잘 생긴 사람으로 선발되어 나왔습니다. 하하. 농담 이고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분야니까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진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 결혼 5주년인데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죠.

임세현 * 와! 정말 자상하시네요. 저는 홍보 담당자가 이번에 체험해 보지 않겠냐고 해서 나왔어요. 제가 꽃을 정말 좋아거든요. 마침 이번 주제가 플라워 아트라고 해서 더 기대하면서 왔어요.

두 분 다 플라워 아트는 처음이신데, 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이상민 * 평소 업무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두 시간동안 다른 것은 다 잊을 수 있었고, 행복했어요. 꽃향기를 맡으면서 봄 기운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꽃들이 거의 다 새롭게 본 꽃들이고, 향기도 좋았어요. 가족이 함께 즐기기도 좋겠다 싶어요. 아이 정서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임세현 * 색을 조합시키는 감각이나 손재주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굳이 색감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꽃 자체만으로도 작품이 되네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꽃다발 (Bouquet)

1. 준비한 꽃들을 다듬는다.
2. 꽃송이가 가장 큰 순서대로, 옆모습이 예쁜 꽃은 마지막에 배치하여 꽃다발 모양을 잡는다.
3. 꽃다발의 중심 포인트를 손으로 잡고, 각각의 줄기가 나선형으로 돌아가도록 한 방향으로 잡아 나간다.
4. 끈으로 고정한 후, 몬스테라 잎사귀와 호엽난으로 묶어준다.



꽃은 감사의 의미로 전하는 경우가 많죠? 평소에 고맙다는 말, 자주 듣고 표현하시나요?

이상민 * 저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회사일이라는 게 도움을 주고 고받는 과정의 연속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서 관계가 더 좋게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의식하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데,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임세현 * 저는 아직 입사 초반이라 가르침을 받을 게 더 많은데, 몇 가지 간단한 것을 해 드렸을 때 고맙다는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일인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제 업무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지금 생각나는 세아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이상민 * 저는 세아 ESAB 국내영업팀 장동진 대리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제가 창원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기차역까지 마중 나와 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는 하나 밖에 안 남은 동기예요. 고맙고, 같이 오래 오래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곧 결혼 5주년인데 아내에게도 한 마디 해도 되죠? 연애와 결혼 기간을 합하면 내 옆에 있어준 지 10년이 됐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임세현 * 저는 세아베스틸 인재개발팀 이민구 대리님에게 감사해요. 제 자리가 팀과 좀 떨어져 있는데, 항상 제 자리로 와서 상세하게 업무도 알려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직속 상사예요.



헤드 드레스 (Head Dress)

1. 라넌큘러스와 미니장미를 와이어링해서 준비한다.
2. 줄기가 가는 꽃들은 그대로 준비해 둔다.
3. 준비된 레이스 위로 꽃들을 하나하나 엮어준다.
4. 그 위에 아이비를 엮어 고정한다.



일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고민이 될 때는 언제인가요?

이상민 *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신규 고객 실적이 생겼을 때, 의기투합해서 매출을 향상시켰을 때, 우리 제품이 고객사의 용접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담당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외근이나 출장이 잦아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게 고민이네요.

임세현 * '이런 것까지 챙겨드려도 되나' 싶은 작은 일을 해드렸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센스가 있다고 해주실 때 보람을 느껴요. 누구든지 상대방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배려하면 서로 친밀감도 생기고 업무 상 관계도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비서 업무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죠.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이상민 * 매달 실적을 달성하면 주어지는 성과급을 받는 게 목표예요.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여기 한번 가 봐야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되도록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갈 생각이예요.

임세현 * 저는 아직 입사 초반이라, 업무를 빨리 숙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저는 세아가 마지막 회사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업무 실력을 쌓아서 "일 잘하는 친구를 정말 잘 뽑았다."는 말을 듣고, 인정받고 싶어요.



도움말 및 장소협조

플라워 아뜰리에 보떼봉떼
www.beautebonte.com



말 없이 마음을 전하다

고마운 그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Spring Come, Rain Fall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2-13 T. 02-3210-1555-6
영업시간 : 12:00 ~ 23:00



‘고맙다’, ‘반갑다’라는 말 대신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수없이 건네도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마땅히 추천할 만한 밥집이 없어서 그 ‘밥 한 번’이 좀처럼 쉽지 않다. 나른하고 입맛 잃기 쉬운 봄날, 고맙고 정다운 누군가와 함께 나눌 밥상이라면 깔끔하면서도 정성스럽고, 건강에 좋은 메뉴였으면 좋겠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잘 먹었다’는 기분을 선사할 든든한 한 끼 밥상이어야 하고, 음식의 맛은 제대로 갖춘 곳이어야 한다. 마침 세아타워 가까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있어 추천하고자 한다.

〈Spring Come, Rain Fall〉의 1층에는 카페가, 2층은 문구 및 주방용품 등을 기획·제작하는 사무실이 공존하고 있다. 카페에서는 이곳에서 제작하는 각종 문구 등의 전시,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식사 후 실용적인 선물을 건네기에도 좋다. 오픈

키친 형태로 구성된 주방은 시각적으로도 즐겁고 위생적일 거라는 믿음이 간다. 카페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식을 중심으로 메뉴가 구성되었을 법도 한데, 이곳은 라이스 종류를 중심으로 식사가 구성되어 있다. 추천 메뉴는 ‘갈비살 라이스’와 ‘햄버거 스테이크’. 느끼하거나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직접 가서 주문하고 식사를 하면 ‘웰빙’에 충실한 훌륭한 메뉴임을 알 수 있다.

우드볼(Wood Bowl)에 담긴 현미밥과 살짝 간이 배인 갈비살, 그리고 신선한 새싹나물이 한 데 어우러져 환상의 궁합을 선보이는 ‘갈비살 라이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기 좋은 봄바람 같은 식사라는 생각이 든다. 햄버거 스테이크 역시 강력히 추천하는 메뉴. 알맞게 구워진 달걀 프라이 아래에 보일 듯 말 듯 누워있는 두꺼운 햄버거 스테이크 패티는 입 안에서 눈 녹 듯 사라지는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며, 같이 조리된 브로콜리와 방울 토마토, 브라운 소스와 함께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다. 행복한 포만감을 느끼면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까지 맛볼 수 있는 이곳, 〈Spring Come, Rain Fall〉에서 고마운 그 사람과 즐거운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내게 당신은 이토록 고맙고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선물이 꼭 값비싼 것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한 편의 영화나 소박한 한 끼 식사가 마음 그대로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말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 바람 살랑거리고 꽃잎 날리는 이 계절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가 있는가? 어색하고 계면쩍어 선뜻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고맙고 귀한 이가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 두 명의 세아인이 추천하는 음식과 영화에 주목해보자.



해피엔딩 프로젝트 Still Mine, 2012

감독 마이클 맥고완
출연 제임스 크롬웰, 쥘스비에브 뷰졸드



강변북로를 외로이 달릴 때 라디오를 틀면 늘 나오는 사랑 노래,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마주하는 TV 속 흔하디 흔한 사랑 이야기,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소주 한 잔 하며 듣게 되는 사랑 이야기. 누구나 사랑을 꿈꾸며, 누구나 사랑을 하며, 누구나 사랑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문해 본다.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며 그것의 정의는 무엇이며 또 어디로 흘러가나.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고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답 없는 물음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가끔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과 사건을 바라보며 “맞아, 사랑은 저런 것이지”, “저런 사랑이 가능할까” 하며 타인의 사랑을 자신의 것과 비교해보기도 한다. 그렇게 흔하디 흔한 애깃거리지만 다시금 생각해보면 결코 같은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하여 그 단 하나의 ‘사랑’(들)을 겪으며 우리는 조금씩 ‘어른’으로서 단단해져 가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

캐나다 어느 마을에 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89세의 남편 크레이그 모리슨은 평생 해로한 아내 ‘아일랜드’에 얽리

자 그녀를 위해 맞춤형 집을 손수 지어주기로 한다. 하지만 그의 ‘집 짓기’는 시청 건축과의 심의라는 예상치 못한 난항에 부딪히고 그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영화는 크레이그의 고집스러운 집 짓기를 통해 지고지순한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차분히 얘기한다.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는 아내와 (설령 예전처럼 건강한 아내 였더라도) 함께 하는 시간, 장소, 사건들을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여기는 것이 그들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나날들 속에 ‘진실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담담히, 잔잔하게 전달한다. ‘프로젝트’라 할 만큼 거창하지 않더라도 결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어떤 행복을 선물할 수 있을까, 문득 생각하게 된다.

원제인 ‘Still Mine’처럼 영화는 ‘엔딩’이 아닌 지속되는 느낌을 남겨둔다. 늘, 여전히 곁에 머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나 역시 이 영화의 제목을 ‘해피엔딩’이 아닌 ‘네버엔딩 프로젝트’라 바꿔 부르고 싶다.

세아제강



제5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세아제강이 3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사회 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감사, 영업, 외부감사인 선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가 이 루어졌다. 아울러, 상표권등록과 관련한 일부 정관 변경, 사내이사 선임 및 이사, 감사 보수 한도 승인에 대한 건들이 결의사항으로 올라왔 다. 한편 이사선임 후보자로 오른 이순형 회장 과 권병기 전무는 세아제강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그 외의 안건들도 모두 원안대 로 승인됐다.

세아 ESAB



조선해양용접재료 기술교류회

세아 ESAB이 4월 16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에서 'DSME, 세아 ESAB 조선/해양 용접재료 기술교류회'를 가졌다. 본 행사는 연구소 및 생 산 현업과의 기존 기술교류를 구조설계 부문까 지 확대해 교류의 폭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 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세아 ESAB과 DSME는 용접재료와 장비에 대한 기술 검토를 설계 단계 부터 함께 수행함으로써, 양사의 기술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창립 제 59주년 기념식 개최

세아베스틸이 4월 3일 본관 3층 교육장에서 창립 제 5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아베스틸의 회사 연혁을 소개 했으며, 이어 우수거래처와 장기근속자, 모범 사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 다. 세아베스틸은 유일특수강, 삼양종합특수강, 한국보전기술, 미래메탈, 유넥스를 우수거래처 로 선정했으며, 이승희 대표이사와 임직원 241 명이 장기근속상을, 36명의 사원이 모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아메탈



창립 20주년 기념식 실시

세아메탈이 3월 21일 창원 본사 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실시했다.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조영호 대표이사 는 “어려운 환경과 무한경쟁시대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세아메탈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 이 혁신과 노력을 다 할 것”을 당부하며 직원들 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 자와 모범사원들의 시상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감사경영 실천다짐 등산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임직원이 감사경영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직원 간 단결력과 화합을 다 지기 위해 2월 28일 충주 남산을 등반했다. 봄의 느낌이 충만한 화창한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충주공장 임직원은 산 정상까지 오르 는 동안 감사경영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 했다. 한편 박상화 공장장은 감사하는 자세를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울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개인과 조직의 발전의 큰 동력으로 작용하 게 된다는 감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아엔지니어링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실시

세아엔지니어링 대전 본사와 앤들이 윤리경 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랑의쌀' 을 전달하는 한편 불우이웃돕기 모금도 실시하 여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당사 임직원은 3월 27일 대전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도서관, 무료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중리복지관 에 쌀 32포(140만원 상당)를 전달했으며, 지속 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여 할 예정이다.

세아홀딩스

출산

성가람 인사기획파트

세아제강

입사

김재홍 본사 STS수출팀

방시현 포항 물류팀

김규진 순천 품질경영팀

박중재 군산판재 업무지원팀

조세훈 군산판재 품질경영팀

강태현 군산강관 생산팀

결혼

권병욱 포항 생산2팀

이정석 군산판재 설비팀

출산

강상일 본사 회계팀

도영원 본사 실수요팀

강명호 포항 생산1팀

오세연 군산판재 생산2팀

한상준 군산판재 생산1팀

유재관 부산실수요팀

김태형 광주영업팀

조의

설인수 본사 자금팀 (부친)

김우성 본사 인사팀 (모친)

임광식 포항 업무지원팀 (부친)

권혁주 포항 생산1팀 (장모)

이득영 포항 생산1팀 (장인)

임규호 포항 생산1팀 (장인)

김장섭 포항 설비보전팀 (장인)

김대열 포항 설비보전팀 (모친)

유한열 군산 강관 시험검사반 (부친)

세아베스틸

입사

김은정 수출팀

송주현 제강설비팀

이상호 압연설비팀

결혼

신주용 영업팀

강성규 연주팀

박용길 소형압연팀

조의

윤정하 압연설비팀

최준오 소형정정팀

김광수 대형정정팀

세아특수강

입사

왕현식 서울 선재판매팀

서종영 포항 생산팀

결혼

진강원 포항 생산팀

출산

최경보 서울 경영기획팀

장효영 충주 생산팀

조의

권용욱 포항 생산팀 (모친)

한국번디

결혼

최규환 평택 생산팀

출산

노민한 평택 생산팀

김성식 평택 생산팀

장소라 평택 품질경영팀

문병국 서울 인사팀

이선호 광주 생산팀

조의

이민규 평택 품질경영팀 (조모)

이명진 평택 생산팀 (장모)

신수경 광주 영업2팀 (시부)

세아 ESAB

결혼

손진수 생산기술팀

조의

길웅 제품개발팀 (장모)

세아메탈

입사

최현승 창원 경영기획팀

결혼

이세종 원주 품질경영팀

세아엔지니어링

출산

이정원 연구개발팀

세아 M&S

입사

문세훈 설비관리팀

김철 생산팀

기월성 영업팀

황유현 영업팀

세아 L&S

입사

김동욱 강관영업팀

황상철 강관영업팀

결혼

오현근 안산영업소

조의

이효인 국제물류팀 (조모)

Reader's Letters

세아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모창배

사보를 오랜만에 읽었습니다. 세아에 대한 알찬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보를 보면서 쇠를 단련하는 건 비단 뜨거운 열뿐만이 아니라 세아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아가족'을 응원하겠습니다.

정소울

올해 첫 사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 소식들이 다양하게 실려있어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신년사가 다른 어느 해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세아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며 다음 사보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김민혁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김민혁입니다. 저희 아빠가 세아특수강에 다니시는데 회사 사보를 읽어보니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커서 세아특수강에 다니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김영희

결과는 항상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벽을 허물고, 별이 되고, 서로 믿고 같은 방향을 향해 전진하는 세아가족들에게 항상 응원을 보냅니다.

Quiz

세아가족 03+04호를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에 한 번 도전해 보세요. 정답을 적어 엽서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제 01

3월 24일에서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세아제강이 참여한 세계적인 에너지 행사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 ① SECONEXPO ② 심토스(SIMTOS)
③ 가스텍(Gastech) ④ 2014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문제 02

2014년 3월, 세아 ESAB이 개발 완료를 발표한 Seamless 플렉스 코어드 와이어 제품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 ① Prime Weld ② Optimus Prime
③ Coreweld 111 Ultra ④ Dual Shield 80-B2

문제 03

'대장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세아베스틸 사내 밴드 동호회의 이름은?

- ① Herrero ② The Smith ③ ONE OK ROCK ④ JET

지난 호 퀴즈 정답자

정경석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정소울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송승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김민혁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혜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신범수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김영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모창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최두이	전북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홍경석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프로 못지 않은 동호회,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책 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chris.ahn@seah.co.kr / 02-6970-0093

철 든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철에 사랑을 더하면 도시는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철에 사랑을 더하면 생활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철강기업 세아,
철에 대한 사랑으로 꼭 찬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고마워, 네 덕분이야, 수고했어

고마운 그 사람에게, 내 주위의 모든 것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고마워”라는 말은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고
“네 덕분이야”라는 말을 나누면 성공의 기쁨이 더 커진답니다.
“수고했어”라고 말은 힘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튼튼한 응원이 될 거예요.